

이슈 파헤치기

스트레스 이유로 빌라에 두차례 불지른 30대女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고법, 검사 항소 기각...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스트레스를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현주건 조팔방화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의 요소로 주장한 사정들

이에 앞서 2017년 1월29일 오전 7시20분쯤 자신이 살던 빌라의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등의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지지른 두 차례 방화로 각각 4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5시쯤 자신이 입원해 있던 광주 북구의 한 병원에서 다른 환자의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불매 운동 눈치보는 고객 잡자” 일본차 ‘번호판 세탁’ 꼼수 영업

9월 도입된 세자릿수 대신 두자릿수 부여 ‘새 차’ 아닌 척
국토부, 제조사 처벌 규정 無... ‘노 재팬’ 되레 자극할수도

최근 일본차 업체들이 지난 9월에 바뀐 세 자릿수 번호판이 아닌 두 자릿수 번호판을 등록해줘 꼼수 영업 논란이 일고 있다. 바뀐 번호판 시스템에 따라 새 번호판을 단 일본차의 경우 불매 운동 이후 차를 구매했다는 표시로 인식돼 일본차 구매자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번호판을 기존 체계로 바꿔 단 것이다. 18일 자동차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일부 일본차 브랜드들은 최근 일본 차량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세 자릿수 번호판이 아닌 두 자릿수 번호판을 등록할 수 있게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부터 새로 등록된 차량의 번호판은 기존

‘7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 등 7자리 번호 체계에서 ‘3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의 8자리 번호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9월 이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8자리 번호판을 달아야 함에도 일본차 업체들은 기존 7자리 번호판을 달도록 영업한 것이다. 새 차의 번호판을 받기 위해선 자동차업체가 발급하는 ‘자동차 제작증’을 지자체에 제출한다. 이때 차량의 ‘번호판 규격’과 달리 ‘긴 번호판’ 크기가 아닌 ‘짧은 번호판’ 규격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두 자릿수 ‘짧은 번호판’을 받은 뒤 자동차검사소에서 두 자릿수 번호에 크기만 ‘긴 번호판’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두 자릿수 번호

판을 받은 일본차들은 15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부터 8자리 번호체계로 바뀌었지만 예외 사항으로 전기차를 비롯한 기존 ‘짧은 번호판’은 두 자릿수 번호가 적용된다”며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긴 번호판을 달게 설계가 돼 있음에도 짧은 번호판으로 허위 발급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영업방식은 일본 불매 운동 기간 중 일본차를 산 구매자들이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교육지책이다. 새 번호판이 불매운동 이후 차를 구매했다는 표시로 인식돼 일본차 구매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새 번호판 제도가 적용될



영하권 출근길 “춥다 추워” 영하권 날씨를 보인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당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8자리 번호판을 단 일본차 목적담과 함께 불매운동 이후 차를 구입했다는 취지의 비난 글들이 다수 올라온 바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영업 방식을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본차 업체들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해당 사안 관련 처벌규정 또한 없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꼼수 영업이 드러난 한 일본차 업체측도 “해당 사실을 몰랐다”며 “항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차 업체들은 연말로 접어들면서 대대적인 할인 판매 속에 최근 판매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KADA에 따르면, 11월 토요타·렉서스·혼다·닛산·인피니티 등 일본계 5개 브랜드 판매량은 2357대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다.

일각에선 꼼수 영업 논란에 잠시 사그라들었던 일본차 불매 움직임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꼼수 영업이 드러남에 따라 일본차에 대한 인식이 악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불매 여파를 의식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 사려고 했던 구매자들의 구매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매 이후 판매량이 소폭 늘어난 이면에 이 같은 꼼수 영업 방식이 뒷받침됐다고 생각하면 기존보다 일본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담배, 금연 징검다리 아냐”

복지부, 3차 금연광고 공개... 국내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게 아니라 담배 자체를 끊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폐 손상을 일으키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전자담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월 국내에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담배·유사담배 포함)의 액상을 분석해 유해 물질을 검출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대마유래성분(THC)은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폐 손상 의심물질로 지목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 범위로 검출됐다. 정부는 중증 폐 손상 원인이 규명되기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중단 권고를 유지하고 ‘비타민E 아세테이트’ 임의첨가 및 사용금지를 추가 권고했다. 나성용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으로 해로운 건 마찬가지”라며 “청소년을 포함해 젊은 층 사이에서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가 유행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을 결심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올해 세 번째 금연광고인 전자담배 편을 19일부터 전국에 방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3차 금연광고는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나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나 모두 금연이 목적이었던 점을 보여준다. 특히 냄새가 나고 주변에 피해를 주기 싫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전자담배 피우는

조선대병원 가정의학과,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

조선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기관 인증서를 전달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조선대병원 가정의학과는 금연클리닉을 마련해 지역민을 위한 금연 치료와 상담 활동을 제 공하고 있다. 지난해 금연 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삼철 교수는 “지역 유관기관과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금연 치료와 상담을 통한 흡연율 감소에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려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조기발견, 자립치료 중인 민척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